

Vol.08

Summer 2023
한국해양진흥공사 매거진
www.kobc.or.kr

비타민 SEA

Theme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 5주년

스페셜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미래, 창립 5주년 KOBIC의 오늘

해운 INSIDE 친환경 선박 컨설팅 전문기업 (주)이이에스

부산 핫스팟 소박한 어촌 마을, 기장의 변신은 무죄

바다, 문화 상상 가득, 애니메이션으로 떠나는 글로벌 여름휴가

5



50

th Anniversary



KOBIC
Anniversary

Vol.08

Summer 2023
한국해양진흥공사 매거진
www.kobc.or.kr



<비타민 SEA>

필수 영양소 '비타민 C'에 SEA(바다)를 활용한 이름으로, 바다와 해운업에 영양을 보충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계간 소식지(사보)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해운기업 지원 정보뿐만 아니라 해운산업과 관련된 각종 글, 공사 임직원의 이야기 그리고 이 책을 접하는 일반 독자들에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주는 정보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발행처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5층, 7층 (우동, 해운대아파트)
T. 051-795-1500



<비타민 SEA> 소식지는 QR코드 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ob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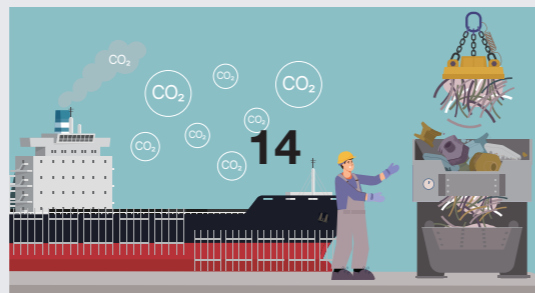
Theme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 5주년



스페셜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미래, 창립 5주년 KOBCC의 오늘



바다로 잇는 NEWS
SEA THE FUTURE



인포+
선박 해체시장 개요,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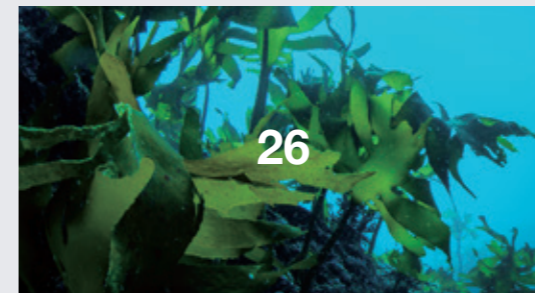
KOBCC는 지금
Back to the 2018, 해진공 1기의 라떼 다방



같이 가치海
청렴한 조직문화의 실현
-해진공 노동조합 제2기 집행부



해운 INSIDE
IMO 환경규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다
- (주)이이에스 추경훈 대표이사, 문석필 이사



알쓸신海
바다가 흡수하는 탄소, 블루카본



부산 핫스팟
소박한 어촌 마을, 기장의 변신은 무죄
이미지 제공: 부산광역시



바다, 문화
상상 가득, 애니메이션으로 떠나는 글로벌 여름휴가

34

KOBCC NEWS
이모저모 해진공

36

Clean KOBCC
KOBCC 청렴·윤리 활동 소식
긴가민가 청탁금지법(공품 등의 수수 금지)
KOBCC 청렴 스크린

38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새로운 CI를 소개합니다



독자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1. <비타민 SEA>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더 좋은 사보를 만들기 위해 <비타민 SEA>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 참여기간: 8월 31일까지
※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10분께 음료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금융 리더를 향한
힘찬 항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김양수입니다.

2023년 7월 5일은 공사가 창립된 지 5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2018년 7월, 공사는 대한민국 해운의 위기 속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해운산업재건'이라는 목표를 기치에 걸고 아래 공사 임직원은 물론 해운산업 관계자 여러분 모두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신 덕분에,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해운산업은 재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해운산업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우리는 또 다시 경기 침체에 따른 해상 물동량의 감소와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 강화, 고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 등 해양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적극적인 해양금융 공급을 통하여 해운항만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적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더욱 확대하겠으며 항만물류금융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또 다른 주력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총 5천억 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하고 한국형 선주 사업을 통해 최대 50척의 선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선사 특별지원프로그램, 연안선사 신용보증, 해운시황 분석과 시장 내 정보 공유기능 강화 등 해운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 기반 확충과 경영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산업에 대한 ESG경영 지원을 강화하고 업계의 외화수요에 대응하여 외화채권을 발행하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혁신도 지속하겠습니다.

공사는 지난 5년을 넘어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며 우리 공사 2030년 비전인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금융 리더'를 향한 힘찬 항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미래, 창립 5주년 KOBC의 오늘

2023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창립 5주년을 맞이했다. 2018년 7월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과 정책을 지원하여 해운선사의 경영난 해소를 돕고, 고품질의 해운시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ESG 경영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과 청렴한 지배구조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ESG 경영부터 금융 프로그램, 경영 지원 및 정책사업 등 해운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면면을 살펴보자.



ESG경영 추진체계

VISION	깨끗한 해양환경, 함께하는 해양산업, 소통하는 KOBC		
ESG 핵심가치	환경경영 탄소중립	동반성장 상생협력	청렴윤리 신뢰소통
중장기 목표	친환경 선박 지원 2조 달성	중소선사 특별지원 2,500억원 달성	부정부패 Zero화
3C 전략방향	E 청정 해양환경 선도 Conserve Ocean Environment	S 해운산업 동반 성장 견인 Connect Ocean Business	G 공정투명 지배구조 구축 Conserve Ocean Governance
전략과제	친환경 선박 확보 지원 강화 환경경영·보전 협업체계 구축 해양환경규제 대응 지원	ESG7면 경영체계 구축 상생의 해양산업생태계 구축 지식기반 동반성장 강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실현 청렴윤리 경영체계 강화 이해관계자 신뢰소통 강화



Part1.

ESG 경영에 진심을 담다

*공사 출범(2018년 7월) ~ 2022년 말 승인 기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구조 등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기업 가치들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속가능한 해양산업의 미래를 위해 그 누구보다 ESG 경영에 진심을 담아왔다. 2021년 CEO 직속 ESG 경영팀을 신설하고, ESG 경영 대응 계획 및 ESG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청정 해양환경을 선도(E)하고, 해운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S)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G)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다.

ESG Performance

[E] 해(海)맑은 환경(Environment)



친환경 해양금융 지원 확대

국내외 해양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고효율 신조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862억원, 친환경 개량 특별보증 5,436억원 등 해운기업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금융을 제공해왔다.

ESG 채권 인증평가 최고등급 획득

공사는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신조 도입 투자·보증사업에 1,5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자금조달을 추진했으며, 한국기업평가의 인증평가에서 최고 평가등급인 ST1 등급을 획득해 채권의 적격성과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였다.

다양한 환경 캠페인·경영 실천

환경경영기본계획 수립 하에 해양플라스틱 감축 운동, 해양쓰레기 정화주간 플로깅 캠페인, 해양정화활동, 새활용을 위한 참여형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환경친화적 녹색 제품 구매, 에너지 관리강화 등 환경친화 경영 내재화에 힘쓰고 있다.

[S] 사람을 품는 바다(Social)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

직접 찾아가는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으로 선박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컨테이너 박스 공급처 다변화를 위한 해외공장 판로를 개척하는 등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 참여

2019년 설립된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에 공사는 2021년부터 한국남부발전 등 9개 기관과 협업하여 기금 조성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매년 1.3억원을 출연하여 금융지원을 포함한 크라우드펀딩,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기업 성장에 힘을 보탰다.

해운항만산업 기술창업 지원 플랫폼 '1876 BUSAN' 구축

2022년, 공사는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유휴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재탄생시켜 해운·항만·물류산업 특화형 창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간 지원부터 자금·컨설팅, 인력매칭, 기술개발, 시장 진출까지 스타트업을 위한 종합패키지 지원기반을 마련했다.

[G] 모두를 연결하는 바다(Governance)



ESG 경영, 추진체계 구축 및 확산 선도

해운협회·한국선급과 '해운산업 탄소중립 실현 및 ESG 경영 확산을 위한 MOU'를 체결해 해운산업의 ESG 경영 확산에 앞장섰으며, ESG 경영 전담부서 및 ESG 경영위원회, 중장기 ESG 경영 로드맵 수립, 노사공동 선포식 등 ESG 경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리스크관리 위원회 운영, 재무·사업·운영 등 각 부분별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구축, 사전·사후·이상징후 모니터링 실시, 사업심사 체계 고도화, 주기적인 리스크 측정 및 환류 등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체계를 통해 정책 지원 목표달성과 재무안정성 간 균형을 꾀하고 있다.

청렴 KOBC 실현을 위한 노력 강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 인권교육 등 윤리경영 내재화를 위한 교육 이수율 100%를 달성하고, 청렴퀴즈 시행, 청렴소식지 배포 등 사내 청렴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Part2.

대한민국 해양금융을 책임지다

*공사 출범(2018년 7월) ~ 2022년 말 승인 기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진가는 해양금융에서 발휘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일반적인 금융지원 기관과 달리 시황에 직격타를 입는 해운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반영하여 해운선사를 지원한다. 해운선사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며 가히 대한민국 해양금융을 책임지고 있다.



[선박도입금융]

신조선·중고선 등 선박도입이 필요할 때

공사는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선박도입이 힘든 국내 선사를 위해 선박도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선박에 대한 공동투자, 공사가 매입·보유한 선박을 BBC 방식으로 선사에 임대하는 등 선박도입 시 자본 투입을 최소화하며, 국내 선사의 선박도입 보증을 통해 선사의 신용을 보강하고 선박금융 활성화를 도모한다.

주요 프로그램 : 선박도입 투자 프로그램, 친환경 선박 지원 프로그램, BBC 프로그램, 선박도입 보증 프로그램

선박 확보 지원(투자)	17개 선사·선박 54척 8,861 억 원	선박 확보 지원(보증)	12개 선사·선박 62척 24,036 억 원
--------------	-----------------------------------	--------------	------------------------------------

[보유선박금융]

보유선박을 활용해 유동성 확보가 필요할 때

해운산업의 선사 유동성 부족과 환경규제에 따른 해운사 재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유선박을 공사에 매각하여 소유권은 이전하되, 선박은 기존과 변함없이 운항할 수 있는 보유선박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유 선박에 대한 신규 차입 시 이를 위한 재금융 보증을 통해 금리 인하 효과를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 : 선박 S&LB(BBCHP) 프로그램, 선박 S&LB(BBC) 프로그램, 선박 재금융 보증 프로그램

보유선박 금융(투자)	31개 선사·선박 52척 8,637 억 원	보유선박 금융(보증)	1개 선사·선박 1척 392 억 원
-------------	-----------------------------------	-------------	-------------------------------



[설비금융]

컨테이너박스 확보와 설비 개량이 필요할 때

컨테이너 선사의 필수 영업자산인 컨테이너박스 확보에 필요한 소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중견선사에 단기간 집중되는 비용 부담을 낮춰 주는 신속·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또한 강화되는 IMO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이차보전사업과 연계한 특별보증을 통해 친환경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 : 컨테이너박스 리스 프로그램, 컨테이너박스 투자 프로그램,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특별보증 프로그램

컨테이너박스 리스사업	5개 선사·200,345대 6,638 억 원
-------------	------------------------------------

친환경설비개량 특별보증	42개 선사·설비 271대 5,436 억 원
--------------	------------------------------------



[항만물류금융]

항만물류 인프라 취득과 하역설비 도입이 필요할 때

공사는 국내기업의 해외 항만물류시장 진출과 네트워크 확대를 목적으로 선사 및 항만사업자의 항만물류 인프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이나 신규 항만개발 시 하역설비 도입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지분 확보, 채권 투자, PF, 펀드 등 다양한 금융구조로 지원한다.

주요 프로그램 : 항만터미널·물류시설 투자 프로그램, 항만하역설비 투자 프로그램

항만터미널 및 물류사업 투자	2,664 억 원
-----------------	------------------





Part3.

해운산업의 길을 제시하다

*공사 출범(2018년 7월) ~ 2022년 말 승인 기준

우리나라 무역에서 해운으로 운송되는 물동량의 비율은 자그마치 99.7%에 달한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해운산업의 영향력과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공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선사의 경영을 지원하고 적기에 고품질 해운시황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강국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경영 지원

회사채 인수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코로나19극복 지원 한시적 운용)

국적 외항선사의 회사채를 공사가 매입하여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거나,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사업자의 이자 경감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해운선사에 즉각적인 지원을 해왔다.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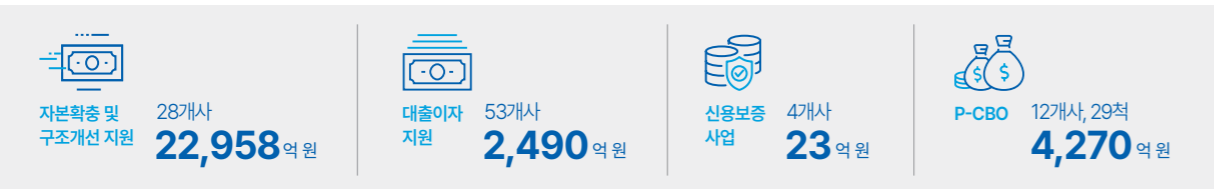
선사의 화물운송계약 입찰 및 체결 시 필요한 보증금을 공사 보증으로 대신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약 미체결 시 발생하는 화주의 손해를 보상하고, 해운사 채무 불이행시 채권자의 계약보증금을 보상하여 안정적인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

신용보증 사업

선사의 긴급 운전자금조달을 위한 신용보증으로 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돕는 보증지원사업이다. 공사는 기업이 필요한 사업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P-CBO 지원 사업(코로나19극복 지원 한시적 운용)

「코로나19 피해대응 유동화회사보증」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공사가 일부 유동화증권을 인수하여 해운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정책사업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친환경 고효율 선박 보급 확대를 위해 저탄소 친환경선박 건조 시, 사업자에게 친환경 등급에 따라 신조선가의 7~10%를 지원하는 제도로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를 통해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CESS) 운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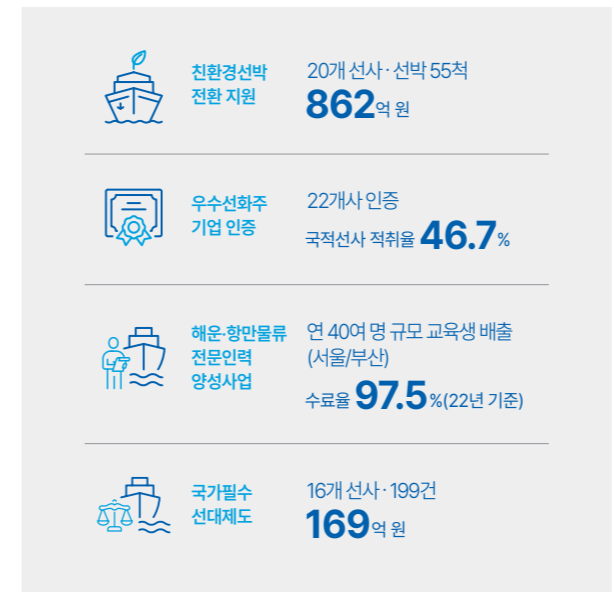
선화주 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선화주기업에 인증을 부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학생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해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해운항만물류 전문가 양성을 위해 맞춤형 실무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해운금융 재직자를 위한 교육을 개설하여 고급 선박금융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사업

공사는 「해운항만기능유지법」에 따라 국가필수 선박(88척) 지정 운영, 손실보상액 산정 및 지급, 국가필수선박 교육 등을 위탁 수행하고 있다. 비상사태 시 전략물자의 안정적 수송과 자국 선원의 안정적 고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정보 제공

해운시황 정보 제공

공사는 급변하는 시장과 현안에 대한 국적선사의 대응력 향상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정기보고서 및 특집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선박가치평가서 발급

공사는 선박담보 가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해운기업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선박 담보 여신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산업이 코로나19, 국제 환경규제 등 급변하는 시장과 위기를 극복하고 선사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국해양진흥공사는 앞으로도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어 힘을 보탬 것이다. 해양금융의 리더로 성장할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해양강국 대한민국 국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SEA THE FUTURE



헬레닉쉬핑뉴스

Liner supply falls as operators reduce average sailing speed by 4%

점점 감소하는 정기선 선속 추세

팬데믹 당시 정기선사들은 강력한 화물 수요 및 광범위한 항만 혼잡에 따라 평균 선속을 높이는 것이 추세였다. 그러나 컨테이너 화물 수요가 부진한 현재 2023년 1분기 정기선의 평균 선속은 13.8노트로 전년 동기대비 4% 감소했으며 2025년 이전에는 '22년 1분기 대비 1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발틱국제해사협회 BIMCO 측이 전망했다.

보통 경기 침체 등 선속 감속압박이 가해져도 대륙간 무역을 하는 대형 정기선의 평균 선속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반면 단거리 항로에서 활동하는 소형 정기선 선속에는 선속 감속 압박의 영향이 미치면서 두 선박간 평균 선속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도 곧 바뀔 것이라고 BIMCO 측이 말했다.

2019년에는 가장 큰 정기선과 가장 작은 정기선의 평균 선속 차이는 2.6노트였으나 2022년 1분기에는 1.8노트, 그리고 이번 2023년 1분기에는 1.6노트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또한 앞으로 EEXI의 최고 선속 제한과 같은 환경 규제를 위해 헤드홀¹⁾과 백홀²⁾ 간 선속 차이도 줄어줄 수 있으며 CE 등 전 반적인 온실가스 배출 목표에 따라 정기선의 평균 선속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BIMCO 측이 말했다.



로이드리스트

Spot VLCC rates trend higher on US volumes

미국/아태평양 VLCC 운임, 상승세 보여

최근 미국발 VLCC spot 용선료는 아시아 정유사들의 원유 공급처가 미국으로 일부 전환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선적 VLCC spot 용선료는 아시아 정유사들이 OPEC+의 감산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등 대서양 유역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하면서 5월 10일 이후 35%까지 상승하였다. 그리고 감산이 발표된 4월 초부터 시작된 용선료 하락 추세도 반전됐다고 Argus의 운임 분석가 Tray Swanson이 말했다.

이로 인해 5월 16일까지 한 주 동안 미국 걸프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향하는 VLCC 용선료는 중동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향하는 VLCC 용선료보다 더 높은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Swanson은 두 지역 간 VLCC 수요가 고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OPEC+의 감산 조치가 2023년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아시아의 원유 구매자들은 대체 원유가 중(中)질유로 지속 공급되기를 원할 것이며, 미국에서 선적되는 캐나다산 원유 또는 남미 원유 물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덧붙였다.



헬레닉쉬핑뉴스

Plentiful Chinese wheat to pile pain on corn and soy from US and Brazil

옥수수, 대두를 압박하는 중국산 밀

업계 분석가들은 중국산 밀이 저렴한 가격과 공급 과잉으로 인해 사료 시장에서 옥수수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옥수수와 대두의 소비를 억제해 잠재적으로 두 곡물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 대두는 올해 기록적인 작황을 기록했지만 현재 중국향 브라질 대두 선적량은 전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중국의 옥수수 구매자들은 좀 더 저렴한 선택지를 기다리기 위해 최근 몇 주 동안 80만 톤 이상의 미국산 옥수수 주문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인 중국은 이번 달 밀 풍작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기록적인 규모의 밀을 수입하였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600만 톤의 밀을 해외로부터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중국산 밀 수확이 임박하면서 지난 두 달 동안 중국의 밀 가격이 15%나 하락해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옥수수보다 밀이 더 저렴한 곡물이 되었다.

사료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밀은 옥수수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밀 사용량이 증가하면 사료로 주로 사용되는 대두박의 소비를 점점 더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드리스트

Smaller transpacific carriers return to pre-pandemic market share

비동맹 정기선사 점유율, 팬데믹 이전으로 복귀

컨테이너 운임 광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태평양 역내 무역에 선복량을 쏟아부었던 비동맹 정기선사들은 수요 감소로 인해 현재 시장에서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조사기관 Sea-Intelligence에 따르면 2020년 1월에 비동맹 정기선사들이 제공한 선복량이 주간 평균 16,000 TEU로 정기선 시장 점유율 중 10%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코로나 이후 정기선 시장이 회복되면서 최대 50,000 TEU의 선복량까지 확보하며 시장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작년부터 시작된 수요 침체 이후 소규모 선사들은 후퇴하기 시작했고 올해 연초에는 주당 평균 선복량이 3만 TEU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현재 비동맹 정기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팬데믹 직전에 보였던 10%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Sea Intelligence 측이 말했다.

이에 Sea Intelligence CEO는 운임 호황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정기선 시장에 진입한 수많은 신규 정기선사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대부분 똑같이 빠르게 시장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드리스트

Panama Canal draught restrictions could leave carriers 'high and dry'

파나마 운하, 6월 25일부터 추가 흘수 제한 예정

Xeneta의 수석 분석가 Peter Sand는 올해 2~4월 동안 파나마 운하의 계절적 강우량 부족에 따라 추가 흘수 제한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5월 말에는 다행히 비가 조금 내리긴 했으나 2~4월 동안의 강우량은 평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덧붙였다.

또한, 24년에 엘니뇨가 다시 발생될 전망에 따라 파나마 운하 인접 지역이 더 따뜻하고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물동량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Lloyd's List 측은 파나마 운하의 흘수 제한이 강화되면 대형 선박이 운하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선사들은 비교적 소형 선을 사용하게 되며, 흘수 제한이 증가할 때마다 물동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흘수 피트는 50피트(15.24m)이지만 현재는 44.5피트(13.46m)로 제한되었으며, 오는 6월 25일부터는 43.5피트(13.25m)로 흘수 제한이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Sand는 4월에만 총 285척의 네오파나막스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했으며, 그중 절반이 컨테이너선이었기 때문에 흘수 제한은 상당한 물동량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JOC

Maersk adds six ships to expanding methanol order book Maersk

메탄올 이중추진선 6척 신조 발주

6월 26일 월요일, JOC 측은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 Maersk가 '26~27년 인도 예정인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선 9,000TEU 6척을 신조 발주하며 자사의 메탄올 추진 선박이 25척으로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Maersk는 작년 2022년에 '24년부터 인도될 17,000TEU 규모의 메탄올 이중 연료 대형 컨테이너 선박 19척을 주문했지만, 이번에는 정기선 항로에서 더욱 유연하게 배치될 수 있는 소형 선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Maersk는 탈탄소화를 위해 기존 연료를 대체할 후보로 메탄올, e-메탄올, 바이오 메탄올을 선정했는데 메탄올이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는 이번달 초에 최초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 선박을 진수시켰으며 현재 한국 연안에서 시범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aersk는 자사 선대가 운송하는 컨테이너의 탄소배출량을 2020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등 전 사업부문에 걸쳐 탄소중립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연초에 발표한 바가 있다.

12 1) 헤드홀(Headhaul): 아시아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수출화물
2) 백홀(Back-haul): 유럽-미국에서 아시아로 되돌아올 때 싣는 물량

선박 해체시장 개요,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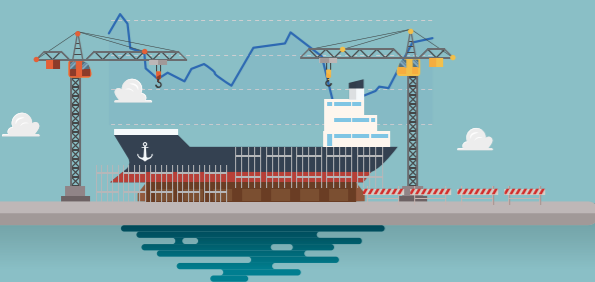


선종별 선박 해체 추이 및 전망

건화물선 추이 - 연간 건화물선 500-1,500만DWT 수준유지 등락 거듭

전망 - '23년부터 선박 해체 증가 예상
선박 해체 증가

IMO 탄소배출 규제로
등급 미충족 선박 해체 증가



컨테이너선 추이 - '21~'22년 팬데믹 특수로 운임 초호황

전망 - '24년부터 집중 해체 예상
상방압력

팬데믹 특수 종료
고시항기 미뤄졌던 컨테이너선 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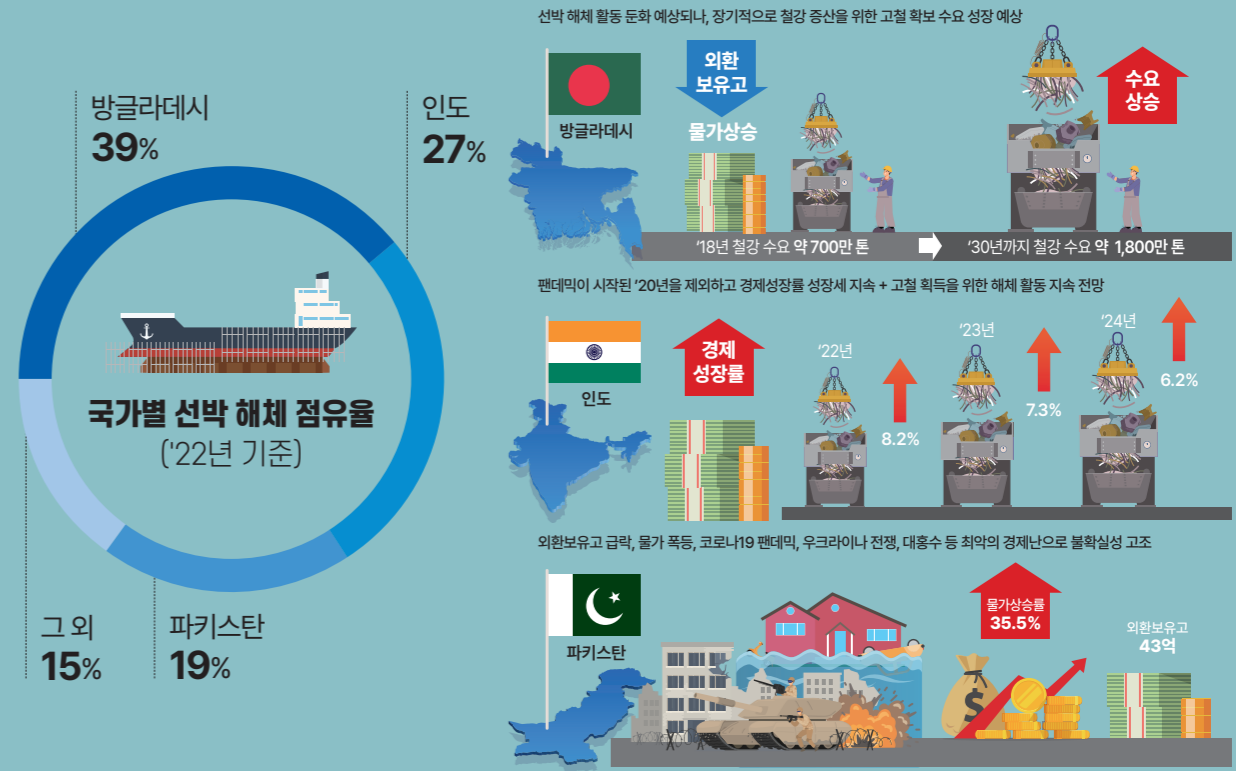
유조선 추이 - '18년 유조선 해체는 1,990만DWT 최근 20년 내 **최고치 기록**

전망 - 비경제적인 유조선 **추가 해체 예상**

낮은 운임 수준, 수입대비 지출과잉,
IMO 탄소배출 규제 시행 예정



주요 해체 국가별 동향



선박 해체시장 전망

해체 대상선박의 공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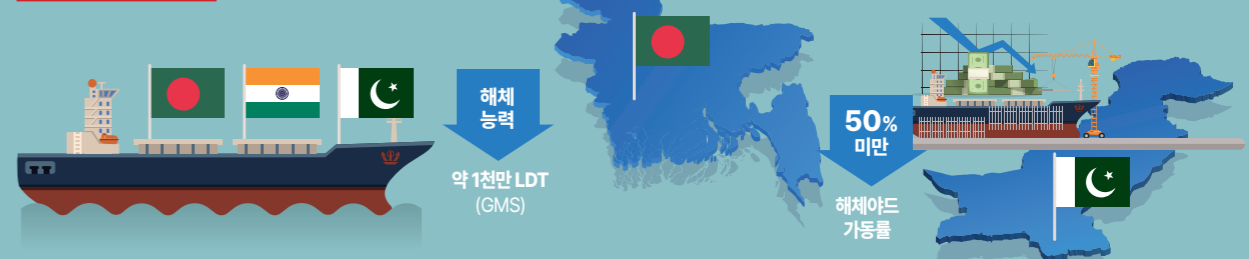
탄소배출 규제 시행, 친환경 ESG 경영 확산, 노후선박 조기 해체 경향 등

3대 주요 선종(건화물선, 유조선, 컨테이너선)의 해체량 (MSI)



야드공급 부족으로 해체선 시장 수급 불균형 악화 예상

- 해체선가 하락 유발, 선박 해체 제한
- 선박 공급 감소를 둔화시켜 선종별 운임 시장에서 하락 압력으로 작용 전망



Back to the 2018, 해진공 1기의 라떼 다방

공사 창립 5주년을 기념하며 공사의 시작과 함께 첫발을 뗀 공채 1기 구성원들을 만나보았다. 초창기 공사의 기억과 지나온 시간만큼 변화된 모습, 지나온 발자취를 짚어본다. 1기 구성원들이 풀어놓은 추억을 한 잔의 진한 '라떼'처럼 즐겨보자.



곽동욱
소속: 해양금융2부
담당업무: 연안선사 선박금융 및 신용보증 사업



손병희
소속: 해양금융2부
담당업무: 중소기업 투자 및 보증



이설
소속: 스마트해운정보센터
담당업무: 컨테이너 시황 분석



이지선
소속: 기획조정실
담당업무: 공공기관 혁신 및 직무급 관련 업무



정다래
소속: 사업전략부
담당업무: 심사평가



하솔메
소속: 해양금융1부
담당업무: 항만터미널 및 물류시설 투자



하은정
소속: ESG경영실
담당업무: 경영평가, 조직성과평가



대방의 창립기념식

2018년, 해진공 1기 신입사원의 기억

곽동욱 공사에 입사하며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온 그때, 파병 나가는 군인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직원이 많지 않아 사무실도 7층만 사용했죠. 복사복작 가족같이 일했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손병희 한여름에 진행된 면접에도 혹시나 떨어질까, 여름 정장을 선택 구매하지 못해 겨울 정장을 입고 땀 뻘뻘 흘리며 면접 봤던 기억이 나요.

이설 치킨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입사교육일 자유시간에 동기들과 치킨집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계시던 모 과장님께서 저희 치킨까지 결제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지선 부서 교육을 듣고 난 뒤, 컴퓨터도 없어 책상에 앉아 업무 관련 서적을 읽었어요. 공공기관에서 주로 쓰는 한글파일 작성법을 몰라 퇴근하고 남아서 동기에게 과외를 받기도 했죠.

정다래 갓 입사하고 부서별로 OJT를 받았어요. 각 부서에서 점심을 사주셨는데, 어린 마음에 가장 비싼 함박스테이크를 사주신 부장님께 충성을 맹세했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저의 운명이 꼬여버린 것이... (닝~담~)

하솔메 집합교육 마지막 날 벅스코에서 열린 공사창립기념식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여담이지만, 공사 채용 면접일은 지금의 아내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날이기도 합니다.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제 인생이 바뀐 날이라고나 할까요.

2023년, '라떼는~'이 절로 나오는 순간?!

이설 도서 대여 시스템이 없던 라떼, 게시판에 글을 올려 책을 빌렸는데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을 대여했다가 부장님께서 혹시 누가 무례하게 대하는 건 아니냐며 신입의 고민을 들어 주셨던 기억이.

정다래 ERP 시스템은 물론 PC도 없이 몇 주를 보냈어요. 수기(엑셀)로 전표를 하나하나 버려냈던 일, 본부장님(!)께서 직접 문서작성법 교육을 해주셨던 일이 떠오르네요.

하솔메 어떤 조직이든 막내의 역할이 있기 마련이죠. 업무 서포트는 물론, 전표처리 같은 작은 일들까지도요. 신입분들이 희의를 느낄 수도 있지만, 사소한 일들이 모여 성장의 초석이 된다고 믿어요. 라떼는 작은 일조차 참고할 샘플도, 물어볼 선배도 없었거든요.

하은정 일반관리, 사후관리 등 단순반복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업무 파일을 작성하느라 후배님들 고생이 많아요. 그러나 라떼는... '빈 문서 1', '통합 문서 1'이 있었답니다.

익명 한 마디!

입사 전에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았는데 경력적으로 들어오신 부장님들이 너무 잘 생기셔서 모두 웅성웅성했던 시절이 있었더랬죠.

5년 동안, 가장 많이 달라진 것

곽동욱 노조가 생기고 조직문화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일하기 좋은 회사로 공사의 이미지가 알려지고 있어 자긍심도 느낍니다.

손병희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며 업무 내외적으로 많이 개선된 것을 느껴요. 개인적으로는 축구 동호회 '오션스일레븐'이 활성화되어 좋습니다!

이지선 동료와 후배들이 많이 늘어 좋지만 지금은 층도 나뉘어 있고, 같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 직원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정다래 5~7층을 쓸 정도로 인원이 늘고 공사 인지도도 상승했어요. 해운업계에서 공사를 모르면 간첩 아닐까요? 저 역시 해운산업 진흥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도 더 커졌습니다!



동기 모임 후, 한 컷!

두근두근 사면직무교육

하은정 적지 않은 일을 해냈다고 느껴요. 금융지원방식 다각화, 공사 개발 운영지수 발표 등 다각적인 국제선사 맞춤형 지원이 점점 늘고 있는 것도 의미미한 발전이고,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어요. 공사 홍보를 위해 늘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하는 홍보팀에도 감사해요~

앞으로 기대되는 혹은 바라는 공사의 변화

곽동욱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는 공사가 되길 바라봅니다.

손병희 '해진공'을 들었을 때, 많은 분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떠올리고 어떤 업무를 하는 기관인지 알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봐요.

이설 앞으로도 묵묵히 공사의 할 일을 해내며 10주년, 50주년, 100주년까지도 축하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지선 업무 범위 확장, 비전 달성, 대외 이미지 제고 등 더 성장하는 해진공이 되길!

정다래 앞으로 공사의 눈부신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하솔메 신입사원이 입사해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 인사, 교육 제도뿐 아니라 모든 조직 구성원의 관심이 신입사원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기를 기대해봅니다.

하은정 국제 해운사들을 위한 일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비효율이나 시행착오의 관례화를 막고,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요.

청렴한 조직문화의 실현

해진공 노동조합 제2기 집행부

2020년 12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해양진흥공사지부가 설립되었다. 공사가 설립되고 2년 6개월, 대한민국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숨 가쁜 질주를 하던 해진공이 공사 밖과 더불어 안을 들여다보기 위한 첫걸음이었으리라. 2022년 12월, 새로운 얼굴로 2기 집행부가 선출되었다. 청렴한 조직문화와 더불어 해진공인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동조합 2기 집행부를 만나보자.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정훈 한국해양진흥공사 노동조합의 김정훈 지부장입니다. 공사의 노동조합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현희 부지부장 조현희입니다. 조합 내부의 운영과 조정을 맡고 있습니다.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목소리를 노사 협의회 등에 반영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사무국장을 맡은 이재운입니다. 주요 업무는 예산 집행이나 회계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니어에 속하는 5, 6급 사원, 대리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노동조합 한국해양진흥공사지부와 주요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김정훈 공사 노동조합은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021년 설립해 출범한 지 3년이 됩니다. 조합원인 공사 직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누구나 다니고 싶은 직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저희 지부의 가장 큰 목적은 조합원분들의 권익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측과 협의를 통해 사내 복지와 인사제도 위주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2기 집행부를 소개합니다!

1 김정훈 지부장

저희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정한 회계 처리와 비용 관련 투명성이 철저히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상근적인 저와 다르게 두 분 간부께서는 **현업과 조합 업무를 병행하고 계시며 어떠한 사심도 없이 조합원들을 위해 고생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2 조현희 부지부장

우리 공사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직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기 집행부는 '소통'이라는 키워드로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우리 공사가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3 이재운 사무국장

김정훈 지부장님, 조현희 부지부장님과 함께라면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일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아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노조 설립 이후의 성과를 꼽아본다면?

김정훈 1기 집행부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롭게 설립하며 조합원 복지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현행 근무 여건 및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를 토대로 근로 조건 관련 제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사협의 회를 통해 병가 제도를 개선하고 출장 시 숙박비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직원 복지를 위해 기존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조현희 2018년도 공사 설립 이후 약 4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었습니다.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생기고 결혼 등 경조사 지원, 난임 시술 지원 등 복지 혜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겠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 활동 내용을 담은 월별 소식지를 만들게 되었고 저희 조현희 부지부장님께서 제작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조현희 각자 업무를 콘텐츠화하여 초안을 작성해주시면 제가 사진을 넣고 윤문해서 한두 장짜리 소식지로 제작합니다. 가내수공업으로(웃음) 주말에 시간 내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으로 직원들의 고충이나 건의 사항 등을 받고 있는데, 이 채널로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내용을 공유해주십니다. 이를 다듬어 소식지에 담기도 합니다.

Q. 앞으로 노조 활동을 통해 어떤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만들고 싶으신지?

김정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조합원들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대하며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내에서 조합원 각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거나, 조합원들께서 가진 소중한 노동권이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이면서 모든 조합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내 문화를 만드는 것 또한 우리 노동조합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희 노동조합 활동이 활성화되어 우리 공사가 소통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노조는 단순히 근로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문화와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사 내부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긍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재운 노사 간 갈등은 회사가 발전하는 과정에 불가피한 요소지만, 노노 간 갈등은 득보다는 실이 많고 조직문화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노조 활동을 통해 직원 간 갈등을 줄이고, 노사 간 합리적인 의견 교환 문화를 형성해서 공사가 여러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부 사무실은 5층 인포메이션 우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주세요!



Q. 올해 계획된, 추후 진행할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김정훈 우선 하반기에는 기존에 체결되었던 단체협약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단협 개정을 통해 직원 대상 전일제 교육 및 관리자에 대한 다면평가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분회별 대의원 및 부서별-직급별 조합원 대상 간담회를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 집행부의 관료화를 막고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부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 직원 입장에서는 워라밸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에도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개정을 앞둔 법률들이 많은데, 개정안에서 우리 공사 직원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서 사내 복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조현희 집행부 출범 후 가장 신경 쓰는 게 바로 '소통'입니다. <비타민SEA>처럼 저희 노조도 월간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관련 현안과 단체 관련 정보, 운영 개정, 노사협의회 결과 등을 최대한 빠르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앞서 말한 것처럼 올해부터 새롭게 월간 소식지를 배포해서 조합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

노동조합 한국해양진흥공사지부 알아보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올바른 사내문화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해진공 노동조합을 소개합니다.

조합원의 자격

· 단체협약 제4조
조합가입 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 단체협약 제5조에 따른 비대상자 제외

조합원 가입현황 *2023년 6월 말 기준

가입대상자 기준
가입률 **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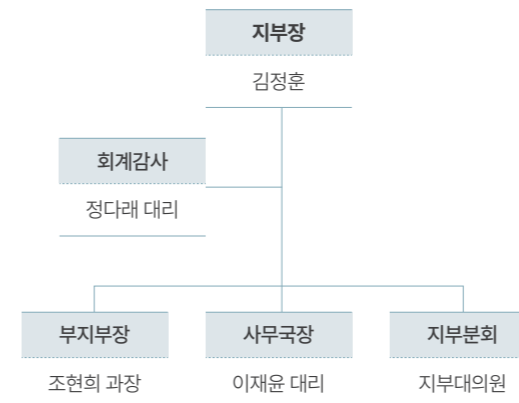


지부 연혁



2020.	12. 14.	지부 설립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해양진흥공사지부
2021.	1. 21.	기초합의서 체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기초합의서
	4. 8.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가입	해양수산분야공공기관 14개사
	7. 9.	최초 단체협약 체결	2021 단체협약 및 인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노사합의서
	12. 30.	최초 임금협약 체결	
2022.	4. 26.	금융공공성강화 투쟁위원회 가입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해양진흥공사지부
	12.	2기 집행부 선출	

지부 조직도



분회 및 대의원 현황

분회명	대의원
ESG경영분회	유수연 사원
리스크감사분회	이재운 대리*
기획조정분회	김원용 과장*
인사총무분회	안재수 과장
재무회계분회	김숨이 과장
사업전략분회	김경규 대리
스마트해운정보분회	이수진 사원
해양금융1분회	정아소 사원
해양금융2분회	윤재광 과장
정책지원분회	한세희 과장

* 부서이동으로 의원 변경, 보궐선거 후 선임 예정

IMO 환경규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다

(주)이이에스 추경훈 대표이사, 문석필 이사



친환경 선박 컨설팅 전문기업, (주)이이에스는 이제 막 발걸음을 뚝딱만 무서운 추세로 성장 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해운산업의 가장 큰 이슈인 IMO(국제해사기구)의 GHG(선박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더는 피할 수 없다는 의미 아닐까. 한국해양진흥공사 가 지원하는 해운항만산업 기술창업지원 플랫폼 '1876 BUSAN'에서 든든한 중소선사의 파트너, (주)이이에스를 만났다.

위기에서 기회로, 환경규제의 답을 찾다

(주)이이에스는 2022년 상반기 1인 기업으로 시작했다. 22년 말에 8명, 23년 6월에 9명으로 지속해서 채용을 확대했다. 2023년 6월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 대표 기술창업기업-밀리언클럽"에 선정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등의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추경훈 대표는 부경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를 졸업한 뒤, 중소조선연구원에서 4년, (구)STX 조선해양에서 15년 동안 근무했다. 문석필 이사는 선박운항학을 공부하고 한진중공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조선 관련 업계에서 17년 이상 경험을 쌓아왔다. 두 사람 모두 조선공학 분야에서 잔뼈가 굵다. 선박운항학은 최적 항로 및 효율적 운항방법 탐색, 선박 운항의 실무적 부분을 담당하는 반면, 조선공학은 기계의 구조와 룰을 해석하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학적인 시각으로 선박에 접근한다. 이들이 전공을 살려 눈을 돌린 곳은 바로 'IMO의 GHG 배출 규제'였다.

국내 선사들이 당장 해결해야 했던 'EEXI 규제'가 바로 (주)이이에스를 시작할 수 있었던 사업적 기반이었습니다.

추경훈 대표는 (주)이이에스의 성장 원동력이자 강점으로 전문 인력을 꼽았다. (주)이이에스는 선박 기본-종합 설계 부문으로는 국내 여타 선박 설계사무소보다 더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재직 인원 중 6명이 국내 대형 조선소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조선공학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거기에 최근 IT 인력까지 보강했습니다.

(주)이이에스는 IMO의 환경규제 대응 솔루션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의 전공 직무를 살려 선박의 기본-상세 설계, 신조선 견적지원, 현존선 개조 지원, 선박 복원성,

해상 시운전, 에너지 효율 향상장치(ESD) 설계 등 다방면의 업무도 아우르고 있다. 대형 조선소 및 관련 기관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전문 인력들이 모이다 보니, 관련 업계의 보유 네트워크도 단단하다. (주)이이에스는 중소선사들이 어려워하는 기관과의 소통에도 적극 발 벗고 나선 까닭에 단기간에 깊은 신뢰와 유대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중소선사 위한 합리적 EEXI 규제 대응

해운의 친환경 이슈는 권고를 넘어서 규제로 강제된 지 오래다. IMO 환경규제는 해가 갈수록 강화되어, 많은 선사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IMO 환경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디자인·설계 측면의 규제인 EEDI(신조선 에너지효율 설계지수)와 EEXI(현존선 에너지효율지수), 운항적 측면의 CII(탄소집약도지수)가 대표적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 EEXI 규제로 인해 운항 중인 현존선은 에너지효율지수를 만족해야 한다. 2022년 11월부터 규제가 발표되었으나, BWTS(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 규제처럼 유예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준비하지 않는 선사가 많았다. 2022년 말, (주)이이에스가 누구보다 바빠 움직인 이유다.

(주)이이에스는 EEXI 규제 대응을 위해 Rule 상세분석부터 자료 수집, 검증 기관과 소통, 건조조선소-엔진제작사 협의, CFD 해석 등 다방면에 걸친 종합 솔루션을 제공했다. 자료 접수 후 최대 3일 이내 계산 결과를 제시하는 등 빠른 대응력은 (주)이이에스의 또 다른 강점이다. EEXI Technical file뿐만 아니라 MAN ES, STX 중공업, VAF, KYMA 등 업체와 협업하여 출력제한장치(EPL, SHaPoLi) 선정 지원 및 선박 설치까지 턴키로 맡아 수행했다. 대형선사와의 협업과 업무 수행을 통해 뛰어난 상황대응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추경훈 대표가 밝힌 (주)이이에스의 주요 타깃은 바로 중소선사다. 대형선사에는 새로운 규제가 발표되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중소선사들은 담당 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소선사의 선박 관리 감독은 상시로 발생하는 선박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바빠, IMO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들다. 나날이 강화되는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힘드니, 실시간 대응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왼쪽부터 추경훈 대표이사, 문석필 이사



대형선사에는 IMO 규제 대응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사실 중소선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발표된 규제를 잘 모르겠다고 문의하시면, 저희는 어디든 갑니다. 부산은 물론, 서울, 김포, 전국 어디든 달려가 설명하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초, EEXI가 발효되기 전부터 (주)이이에스는 매일 두세 군데 이상 선사들을 일일이 찾아갔다. 규제 배경부터 개정 내용, 각 선급의 승인 주요확인사항, 그리고 해결책까지 선사들을 수차례 찾아가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당시 국내에는 EEXI를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이 약 700척 정도로 추산된다. (주)이이에스는 국내 해운 선사 기준 70% 이상, 약 500척 가까이 되는 선박에 EEXI 규제 대응 솔루션을 제공했다. 상당한 실적이다.

KR 인증, CII 등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EEXI 규제 대응은 이제 마무리 단계다. 앞으로는 CII 규제가 시작된다. CII는 5,000GT 이상 선박에 적용되며, 1톤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 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선박 운항정보를 활용하여 사후 계산해 지수화한 값을 말한다. 1년 동안의 운항데이터가 필요해 첫 CII 등급은 당해 운항정보가 쌓인 후, 내년 초에 확인할 수 있다. CII 등급은 A부터 E까지 있으며, D등급 3회, E등급 1회를 받게 되면 CORRECTIVE ACTION이라는 CII 개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이후에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박 운항은 정지된다. (주)이이에스는 2024년에 D등급이나 E등급을 받게 될 국내 선박의 수를 전체 선박의 약 30%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CII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Energy Saving Device와 같은 부가장비를 부착하는 것이다. 하지만 Energy Saving Device의 개선 효과는 1~2% 남짓인데 비해 비용은 매우 크다. 게다가 설치 공사는 보통 한 달 이상 소요되며, 그동안 운항이 불가하다. 이는 곧 선사의 손실로 이어진다.

최근 (주)이이에스는 CII 등급 분석 및 향상 플랫폼을 개발했다. 고비용의 부가장치 설치 없이 FLOW METER, 전력량계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CII 등급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주)이이에스의 CII 등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Noon Report 또는 실시간 정보 전송 모듈을 선박에 장착하여 CII 등급을 산출한다. 산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공학 기술을 적용하여 CII 등급 향상 해결책을 즉시 제공하며, 개선 효과는 무려 10~20%에 달한다. 최종 자료는 IMO DCS 양식으로 자동 제작되어 매년 상반기, 규제에 대한 선사의 부담을 최소화해준다.

중소선사에 부담이 되는 고비용 장비 설치 없이도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주)이이에스의 솔루션은 Energy Saving Device 대비 50% 이상 낮은 비용으로 더 뛰어난 절감 효과를 자랑할 뿐 아니라, 공사 기간도 3일 이내로 항구 대기 시간 내에 공사를 끝낼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중소선사가 (주)이이에스를 선택한 이유는 최소한의 공사기간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환경규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이이에스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7월 중 한국선급의 플랫폼 인증서가 발행될 예정이다.



EEXI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빨리 대응했습니다. 여기에 저희 (주)이이에스도 일조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우뚝, 부산 너머 세계로

부산시 동구, 부산역 부근에 위치한 1876 BUSAN은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술창업 지원 플랫폼으로 부산시와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운영·지원한다. 추경훈 대표는 창업을 준비하던 중에 1876 BUSAN에서 입주 스타트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발견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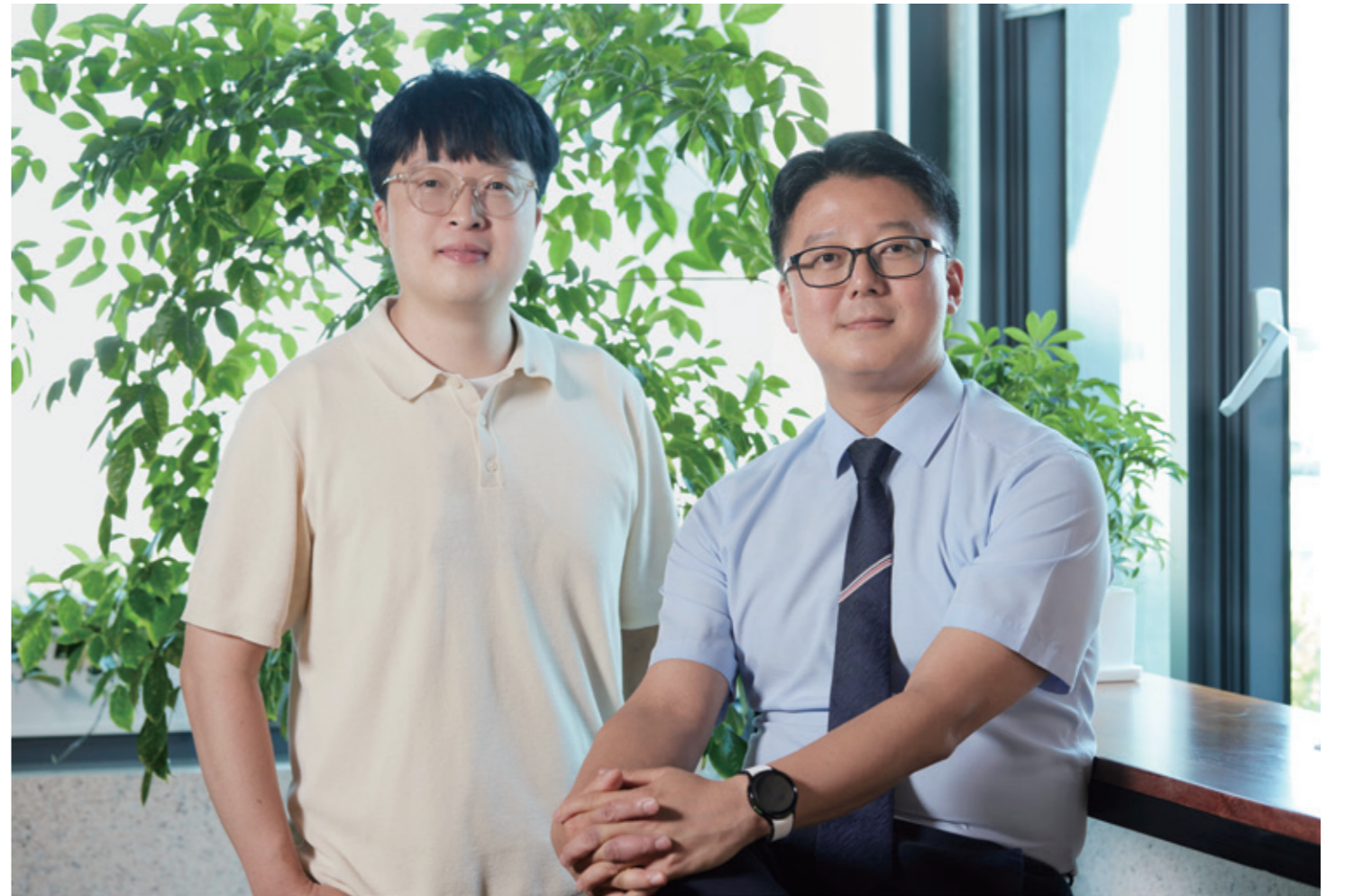
주변에 해운선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걸어서 갈 수 있는 선사도 있어요. 그만큼 위치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창업으로 들어와 2층을 쓰다가 인원이 늘고 사무실이 좁아져 지금은 더 넓은 3층으로 올라왔어요.

IMO 규제에 관한 문서가 발표되면 제일 먼저 한국선급에서 공고한다. (주)이이에스는 공고 내용을 토대로 스터디를 진행한다. 발표되는 규제 내용을 정리하여 해운선사들에게 메일로 알리고 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관 네트워킹을 활용해 환경규제의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선사들에게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이이에스는 현재 CI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토대로 정량적으로 CII 등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해운선사 맞춤형으로 재설계하여 환경규제 토탈 솔루션 컨설팅을 지속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 신경망 지능(AI)과 웹 기반 심층학습을 (주)이이에스 자체 플랫폼에 구축하여 IMO GHG 규제에 만족할 수 있는 운항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또한 Posidonia 등 해외 조선해양 박람회에도 참석하여 해외선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보유한 기술을 세계적으로 선보일 기회를 엿보고 있다.

중소선사는 대형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정보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중소선사들에게 선박의 운항이 정지되는 것은 그야말로 치명적이다. IMO 환경규제의 최전선에서 중소선사의 막막함을 풀어주고, 합리적인 규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 (주)이이에스. 중소선사의 등극한 동반자로, 든든한 환경규제 해결사로 성장할 기업 (주)이이에스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한다.

앞으로 IMO 환경규제 대응의 길을 제시하는 등대 같은 기업으로 성장하여 국내 중소선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바다가 흡수하는 탄소, 블루카본



탄소 짝 잡는 해양생태계

바다를 상징하는 'Blue'와 탄소 'Carbon'를 합친 단어인 블루카본은 바다와 바닷가 연안의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블루카본의 개념은 2009년 UN에서 발표한 보고서¹⁾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해양생태계가 흡수한 탄소는 해초나 물고기 같은 생명체 내부에 '격리'되거나 흙과 바닷물 속에 '저장'된다.

바다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은 스스로 기체를 흡수하며 몸집을 키운다. 이처럼 공기 중 탄소가 동식물의 형태를 구성하며 빠져나오지 않는 것을 '격리'라고 한다. 격리를 통해 많은 양의 탄소가 흡수되지만, 식물이 죽으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다시 공기 중으로 돌아간다. '저장'은 식물이 흡수한 탄소가 뿌리를 통해 흙으로 이동하거나 사체에 있던 탄소가 흙으로 흡수되어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데, 탄소가 한번 땅속에 저장되면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을 가뒀놓을 수 있다고 한다.

인류가 배출한 탄소의 55%는 해양생태계가 흡수한다. 바다가 육지보다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는 이유는 육지와 달리 산소가 거의 없는 물속 환경 때문이다. 육상에서는 생물들이 박테리아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반면 산소가 거의 없는 바닷속과 연안에선 박테리아가 산소호흡을 하지 못하고 혐기성 분해하여 탄소가 배출되지 않고 해양생태계에 저장된다.

블루카본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생물체는 맹그로브(해표림), 염생습지, 해초다. 이 세 가지는 해양 전체의 0.5%도 안 되는 면적에서 서식하지만, 전체 해양생태계에 존재하는 탄소의 50~71%를 저장한다. 습지는 블루카본을 저장할 뿐 아니라 습지의 황산염이 미생물의 분해를 막아 메탄 같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일거양득의 역할을 한다.

자연기반해법으로 맞서는 기후 위기

인간의 자연 훼손과 가속된 기후 위기로 인해 맹그로브 숲과 갯벌이 사라지고, 녹조류가 과도하게 번식하는 부영양화가 일어나며, 폭풍의 강도가 강해지고 빈도가 증가하는 등 바다 연안이 점차 파괴되고 있다. 2022년

NASA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많은 양의 탄소가 매장된 염습지가 사라지면서 지구가열화를 부추긴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 로라 파토인보(Lola Fatoyinbo)는 "중요한 해양생태계인 염습지 손실로 인해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 정책을 결정할 때 블루카본 생태계를 포함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Paris Agreement)²⁾ 이후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³⁾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해왔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⁴⁾이 기후위기에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블루카본 생태계에서 바다는 지속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한편, 연안은 폭풍과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육지를 보호하고 해안선 침식을 방지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힘을 보여준다. 해양생태계의 위기는 곧 인류의 위기로 직결된다. 이는 블루카본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자원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의 바다를 위하여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7억 2,700만 톤의 약 40%인 3억 톤을 감축해야 한다. 남은 기간 연평균 감축률이 5.4%씩 되어야 가능한 목표다. 우리나라처럼 국경이 바다와 맞닿아 있는 국가들에겐 탄소 감축 수단으로 블루카본을 흡수하는 생태계의 중요성이 크게 작용한다. 이에 2013년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바다식물일을 5월 10일로 지정하고 법정기념일로 삼았다.

우리가 보유한 천혜의 자연유산인 갯벌은 연간 26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그 경제적 가치는 연간 17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면적은 원래 모습의 절반에 불과하다. 성장 과열 시대의 끝없는 개발에 간척, 매립된 탓이다. 이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2020년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중 하나가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다.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고 생태기반 솔루션을 강화하여 탄소 흡수 능력을 높여겠다는 얘기다.

탄소 감축을 위한 움직임은 아직 불투명한 미래를 그리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복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이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 환경을 위해서 블루카본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고민과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해양자원 보호구역 지정과 복원사업 등 관련 정부 정책이 뒷받침해주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기후 변화와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화제는 단연 '탄소'일 것이다. 뉴스와 기사, 심지어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넷제로', '탄소중립'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이제는 지구와 환경을 위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모두들 말한다. 그러나 정작 탄소 흡수 속도가 육상보다 50배나 빠른 해양의 중요성을 말하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기후위기 대응의 열쇠가 숨겨진 해양생태계 속 '블루카본(Blue carbon)'에 대해 알아보자.

1) UN, Blue carbon: the role of healthy oceans in binding carbon, 2009.
2) 국제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는 최초의 기후 협의로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인간활동에 의해 배출된 온실가스가 전지구적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균형을 이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게 하는 것(탄소중립포털)
4)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복원하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방법(IUCN, 2016)



소박한 어촌 마을, 기장의 변신은 무죄

부산 외곽에 자리해 동쪽 바다를 끼고 해안 절경이 아름다운 곳, 빼어난 경치를 품은 어촌마을이던 기장에 변화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최근 울산 태화강까지 개통된 동해선은 승객을 기장으로 한결음에 데려다주고, 융복합 해양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되며 그 주위로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생겨났다. 곳곳에 건물이 들어서고 색다른 문화가 담긴 공간들이 탄생하고 있다. 나날이 달라지는 기장의 새로운 매력을 함께 만나보자.



천혜의 자연을 즐기고 싶다면:
해동용궁사, 시랑대, 오랑대

산과 질푸른 동해가 맞닿은 끝자락, 바다와 가장 가까운 사찰인 해동용궁사는 양양 낙산사, 남해 보리암에 이어 한국의 삼대 관음성지 중 한 곳으로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930년대 초 보문사로 복원되었다. 1974년 주지스님이었던 정암이 꿈에서 흰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용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본 이후로 '해동용궁사'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찰들이 대부분 산속에 있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사찰 앞에 시원하게 트인 바다가 인상적이다. 배산임수라는 지형 특성 덕분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로 소개되기도 한다. 진심을 담아 기도하면 현몽을 꾸고 한 가지 소원을 이루게 되는 영험한 사찰로도 유명하니, 방문하게 된다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빌어보길 바란다.

해동용궁사 남쪽에는 기장 8경으로 손꼽히는 시랑대가 있다. 1733년, 기장 현감이었던 권혁은 자주 이곳의 바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풍월을 읊었다고 한다. 그 바위에 '시랑대'라는 글씨를 적어 현재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후로 바다 풍경을 즐기려 방문한 풍류가들이 바위에 시를 새기고 갔으나 현재 대부분 파손되고 일부만 기록으로 전해진다. 시랑대에는 전망대 역할을 하는 쉼터가 있어 편하게 앉아 감상할 수 있다. 푸른 초목을 등지고 파도가 치는 소리를 듣고, 넘실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풍류를 즐기던 선조들을 따라 시랑대의 절경을 감상해보자.

다시 해안길을 따라 북쪽으로 나아가다 보면 시랑대와 더불어 오시리아 관광단지 명칭의 유래가 된 오랑대가 등장한다. '오랑(五郎)'은 다섯 남자를 뜻하는데, 오래전 다섯 선비가 기장으로 유배 온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이곳 바닷가 암벽 위에 둘러앉아 경치를 즐겼다는 설에서 유래한다. 옛 선비들이 즐겨 찾던 곳이니만큼 푸른 동해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연출한다. 바위 꼭대기엔 어부들의 안전을 염원하는 제단인 용왕단이 자리하고 있다. 오랑대 주변으로는 공원과 함께 대변항까지 이어지는 해안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다. 일출 명소로 이름난 곳이라 해 뜨는 순간을 찍으려 많은 사진 동호인들이 방문한다. 해운대나 광안리처럼 변화한 도시 바다의 번잡함을 피하고 싶다면, 시원스레 펼쳐진 기장 앞바다를 벗삼아 걸으며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부산의 미래를 짓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한적한 어촌마을이던 기장의 최근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오시리아 관광단지일 것이다. 부산시는 세계적인 도시라는 비전을 세우고 새로운 공간 이미지 창출을 위해 기장에 관광단지를 조성했다. '오시리아'라는 이름은 '오랑대'와 '시랑대'를 합친 이름으로 '부산으로 오시리아'의 중의적인 뜻까지 내포한다. 특급호텔부터 리조트 등 관광을 위한 다양한 숙박시설과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몰 등 상가시설을 구축하고 테마파크와 루지 같은 오락, 문화시설을 유치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핵심 랜드마크가 된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은 '동화 속 왕국'이라는 테마로 2022년 3월 정식 개장한 부산 유일의 대형 놀이공원이자. 말하는 나무 토크 트리, 여름철 더위를 식혀주는 분수대와 롯데월드의 상징인 로리 성 등,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 곳곳에 가득하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와 국내 최초로 도입된 어트랙션인 자이언트 디저(롤러코스터), 자이언트 스플래시 등 스틸 넘치는 놀이기구들이 짜릿한 재미를 선사한다. 이외에도 화려한 퍼레이드 같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니 친구, 가족과 함께 동화 속 세계로 떠나보자.

많은 부산 시민이 쇼핑을 위해 오시리아를 찾는다. 합리적인 가격의 홈퍼니싱 제품을 찾는다면 IKEA 동부산점에 방문해보자. 대형 창고처럼 거대한 건물 전체가 쇼핑몰인 IKEA는 3층 소를을 다양한 콘셉트의 생활 공간으로 꾸며두었다. 소를을 다 둘러보고 원하는 물건을 카테고리별로 2층과 1층에서 구매할 수 있는 동선으로 되어있다. IKEA를 마주하고 그리스 산토리니 컨셉으로 지어진 건물은 바로 롯데프리미엄아울렛(롯데몰)이다. 다양한 명품 브랜드가 입점해있는 아울렛과 생필품을 구매하는 마트에 영화관까지 한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어 쇼핑 외에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휴가철, 오션뷰 숙소에서 멋진 호캉스를 즐기고 싶다면 아난티코브를 추천한다. 축구장의 10배가 넘는 대지에는 아난티코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휴양 시설로 힐튼 호텔부산, 아난티타운, 워터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탁 트인 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인피니티 풀과 노천탕 같은 부대시설을 제공하며 바다를 향해 61도 기울어진 버트레스(Buttress) 공법으로 숙박객에게 훌륭한 바다 조망을 선보인다. 아난티코브를 두르고 있는 해변과 숲, 갯바위가 조화롭게 펼쳐진 해변산책로에서 느긋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다.



과학관은 바다를 가르는 배처럼 우리를 과학의 세계로 실어주며, 일상 속 과학의 재미를 느끼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 과학관은 전시물을 수집, 보존하는 단순 관람의 차원을 넘어 시민들과 커뮤니케이션하며 지역의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체험형 전시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창의력을 깨워주는 기장의 과학관들을 만나본다.

출렁이는 과학의 바다:

국립수산과학관

바다를 끼고 있는 국립수산과학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수산 전문 과학관으로 우리 바다 생태계를 보여주는 다양한 기록과 수산업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수산과학관답게 해마 형태의 분수가 관람객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다. 과학관 내 전망대에서는 드넓게 펼쳐진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전시관 입구에 들어서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물 복원했다는 참고래의 뼈가 전시되어 있다. 14가지 주제로 구성된 전시관은 수산자원과 어업기술의 발전사, 해양환경 등 드넓은 바다만큼이나 다양한 정보를 품고 있다. 이중 가장 인기 있는 전시관은 역시 살아있는 어류를 관람할 수 있는 아쿠아리움이다. 국립수산과학관은 다양한 관람시설 외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가족과 함께 참여해보길 바란다.



이미지출처: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국립부산과학관

국립수산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부산 시민 114만 명의 유치 서명에 힘입어 2015년, 국립부산과학관이 개관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초연결 과학관으로 연간 100만여 명이 방문한다. 본관 건물은 '과학의 바다로 향해하는 배'의 모습을 형상화하였으며 수송 테마형 과학관이자 미래 과학의 전진기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입구를 통과하자마자 보이는 건 은색의 거대한 미끄럼틀인 '다이나믹 슬라이드'다. 중앙홀에서는 편리한 관람을 돕는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안쪽 무대에서 댄스 로봇들이 춤 실력을 뽐낸다. 자동차, 항공우주, 선박, 에너지, 의과학을 주요 테마로 삼은 전시관에서는 융합형 콘텐츠와 실감형 미디어 전시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즐길거리가 다양하다. 2022년엔 '어린이를 위한 과학 놀이터'를 표방하는 어린이과학관까지 개관하여 더욱 풍족한 체험 전시를 제공한다. 어른들의 동심을 자극하고, 과학 꿈나무들에게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국립부산과학관에서 과학의 바다로 항해를 떠나보자.

여름날 즐기는 어촌 문화체험, 기장갯마을축제

일광해수욕장 이벤트 광장 일원

1995년부터 이어져 온 기장갯마을축제는 오영수 작가의 소설 『갯마을』과 1965년 김수용 감독의 영화 『갯마을』의 배경이 된 일광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리는 바다문화축제다. 기장멸치축제와 더불어 기장군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 꼽힌다. 후리그물당기기, 맨손고기잡이 등 어촌 문화체험 콘텐츠를 포함하여 시민들에게 지역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여름철의 낭만을 지역 바다축제와 함께 즐겨보길 추천한다.

짜릿한 라이딩, 스카이라인 루지

부산시 기장군 기장해안로 205
문의 : 051-722-6002

오시리아의 대표적인 아웃도어 체험 시설 스카이라인 루지는 루지 카트를 타고 4개 트랙(총 2.4km)을 다운힐 라이딩으로 내려오는 레저 스포츠다. 최저부터 최고지점까지 높이는 약 100m이며, 코스는 30여 개의 곡선 구간과 터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발지점까지는 스카이라이드 리프트를 타고 이동한다. 신장 85cm 이상의 어린이들은 보호자 동반하여 탑승할 수 있으니, 가족과 함께 바다를 배경으로 스릴 넘치는 스카이라인 루지를 경험해보자.

에디터 추천
함께 즐기면 좋은 기장의 레포츠와 지역축제



상상 가득, 애니메이션으로 떠나는 글로벌 여름휴가

한낮의 열기가 뜨거운 여름이 왔다. 아스팔트 지글거리는 무더운 여름을 한 김 식혀줄 휴가가 절실하다. 설레는 여행계획도 잠시, 봄비는 공항과 길고 긴 여행길. 짐을 싸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것이 겁난다면,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집에서 세계 여행을 떠나보자.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웃음과 감동, 상상력 가득한 애니메이션 세계로 당신을 안내한다.



청량한 오세아니아 바다에서 모험을
<모아나>
2017 | 113분 | 미국

맑고 투명한 바다와 푸른 하늘이 펼쳐진 지상 낙원, 모두누이 섬으로 떠나보자. 영화 속 모두누이 섬의 배경이 된 오세아니아에는 수많은 섬 국가들의 다채로운 문화만큼이나 오랜 전설이 가득하다. 존 머스커 감독이 '태평양 전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에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 것처럼 영화 곳곳에서 태평양 문화를 엿볼 수 있다. 평화로웠던 모두누이 섬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저주에 걸리자 바다의 선택을 받은 용감한 소녀, 모아나는 섬을 구하기 위해 항해를 떠난다. 저주를 풀기 위해서 신이 선택한 전설 속 영웅인 마우이를 찾아가 그의 도움을 구한다. 생동감 넘치고 인간적인 매력을 지닌 캐릭터들이 돋보이는 영화로, 특히 마우이는 할리우드 배우 '드웨이 존슨'의 탄탄한 신체와 자신감 넘치는 말투를 투영시켜 입체적으로 구현한 캐릭터다. 비와 화산, 모래를 만드는 바위 유형까지 고려하여 디자인한 바다와 파도는 놀라운 디테일을 자랑하며 영화 내내 청량감을 선사한다.



일본의 바닷가 마을에서 서핑을
<너와 파도를 탈 수 있다면>
2020 | 96분 | 일본

일본의 한 바닷가 마을. 졸업을 앞둔 대학생 히나코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이 깊다. 히나코의 유일한 낙은 바로 서핑. 영화 초입부터 철썩이는 파도와 한적한 마을 풍경에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지고, 새하얀 포말을 가르며 서핑을 하는 장면은 보는 사람까지 덩달아 바다를 찾고 싶어지게 만든다. 서핑을 사랑하는 대학생 히나코와 정의로운 소방관 미나토는 화재현장에서 운명처럼 만난다. 서핑을 하며 더욱 가까워진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되는데 행복도 잠시, 히나코는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커다란 상처를 입는다. 좌절과 슬픔을 건너 다시 바다를 찾는 용기를 내는 히나코. 자기만의 파도에 올라타는 히나코의 회복과 성장은 보는 이의 마음을 울린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노래 소절은 엔딩크레딧이 끝나도 영화 포스터를 볼 때마다 귓가에 맴돌 것이다. 제52회 시체스국제영화제, 제23회 판타지아국제영화제, 제22회 상하이국제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의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았다.



아일랜드의 신비로운 전설을 따라
<바다의 노래: 벤과 셀키요정의 비밀>
2016 | 93분 |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아일랜드의 지브리 스튜디오라고 불리는 '카툰 살롱' 제작 애니메이션으로 2015년 아카데미상식 최우수애니메이션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는 등 다수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았다. 여동생을 낳고 사라져버린 엄마를 그리워하는 소년 벤은 6살이 되어도 말을 트지 못하는 여동생 시얼사가 입기만 하다. 달빛이 밝은 어느 밤, 시얼사는 바닷속 바다표범과 신비한 경험을 하고, 아내처럼 딸까지 잃고 싶지 않은 아빠는 남매를 도시의 할머니댁으로 보낸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남매의 여정은 '마법에 걸린 여동생을 구하는 모험'으로 탈바꿈한다. 물개에서 인간으로 변할 수 있는 신화 속 존재 '셀키'의 전설을 차용한 작품으로 아일랜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디지털로 만든 배경에 수채화로 직접 그린 캐릭터를 더하는 방식으로 작업해 이국적인 그림체의 독특함이 배가된다. 동물과 요정, 숲의 풍경은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책 같다. 아이는 물론 어른까지도 북유럽 전설의 매력에 푹 빠질 좋은 작품이다.



붉은 고래가 날아오르는 환상적인 세계로
<나의 붉은 고래>
2017 | 101분 | 중국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북쪽 바다에 곤(鯨)이라는 큰 물고기가 있었는데 얼마나 큰지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를 정도이다. 이 물고기가 변해서 붉이 되었다. 이 영화는 동양의 철학자, 장자의 '봉정만리[鵬程萬里]' 사상에서 출발한다. 모든 인간의 영혼은 인간 세계를 떠돌다, 깊은 바다 아래 펼쳐진 또 다른 세계로 향한다. 그곳에는 인간의 영혼을 관리하고 자연의 섭리를 관장하는, 인간도 신도 아닌 특별한 존재들의 세계가 있다. 성년식을 맞아 고래로 변신해 인간 세상으로 탐험을 떠난 소녀 '춘'은 돌아오는 길에 그만 뒷에 걸리고 만다. 이를 본 소년 '곤'은 춘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다. 춘은 곤을 살리기 위해 영혼관리자와 위험한 거래를 한다. 한중일 합작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기간만 12년에 달하는 대작이다. 커다란 붉은 고래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광경이 그야말로 웅장하다. 추, 문지기, 쥐할멈, 영혼 관리자 등 흥미로운 능력의 개성 만점 캐릭터들이 보는 재미를 더한다.

이모저모 해진공



3억 달러 글로벌본드 발행 성공

4월 24일(월) 공사 설립 이후 최초로 5년 만기 달러화 표시 채권 3억 달러를 발행하였습니다. 최종 주문은 29억 달러 이상, 장중 31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청약 배수는 약 10배, 투자 주문은 주로 아시아(89%)와 유럽 지역(11%)의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기관에 집중되었습니다. 최종 발행금리는 최초 제시 금리 대비 30bp(0.30%) 축소되었으며, 신규 발행 프리미엄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운시장 특성상 환 위험에 노출된 국적선사의 부담을 경감시킬 안정적인 달러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공사는 외화채권 발행을 통해 외화 자금 조달 방안을 다변화하여 향후 국적선사들의 달러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공사가 기획재정부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사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국제경제 상황 속에서도 국내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해운금융 및 해운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해운 산업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해운산업 ESG 경영 기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설명회 성황리 개최

4월 27일(목)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 홀에서 개최한 2023년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해운항만물류, 해양금융 등 유관산업 관계자 250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성과 소개, ESG 경영 추진방향, 해운시황 동향 및 전망, 해양금융 1부·해양금융 2부·정책지원부 사업 소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해운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공사는 지속 가능한 해운 산업 발전을 위해 민관협력과 현장소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3년 상반기 K-컨테이너 박스 경쟁력 강화 세미나 성료

5월 3일(수) 부산 벡스코에서 '2023년 상반기 K-컨'박스 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부에서는 해운 및 컨테이너 시장 전망, 국내 '컨'박스 금융지원 사례, ISO 탱크 컨테이너 시장 동향 및 전망, 장기체화 '컨'박스 회수 사례 등 유관 산업 전문가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2부에서는 선사별 '컨'박스 수급 현황 및 신조 수요, '컨'박스 제작 및 선사 조달 관련 이슈, 공사 '컨'박스 리스 지원 사업 민관협업 방안 등 '컨'박스 협업체 참여기업 간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사는 수렴된 의견을 공사 '컨'박스 리스 지원 사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바다사랑봉사대 2기 출범 및 연안정화활동 실시

5월 25일(목) 바다사랑봉사대 2기 출범식을 갖고,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부산 영도구 일대 연안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26명의 공사 임직원이 활동할 예정이며, 연안 정화 활동 외에도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활동은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부산 바다 조성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해양진흥공사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동원산업 등 지역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총 9곳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해양 환경보호와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해운산업 ESG경영 대응 위한 국적선사 간담회 개최

5월 25일(목)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해운산업 ESG 경영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적선사 ESG 경영 담당자와 해양수산부, 한국 해운협회, 한국선급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해운산업 ESG 경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공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ESG 경영 현황 및 대응 발표 이후 ESG 경영 도입 관련 민간 부문 현안,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 등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해양수산부, 한국 해운협회, 한국선급 등 관계기관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화주 상생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5월 26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2023년 선화주 상생 교류회'를 개최했습니다. 교류회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22개 선사 및 화주사 실무자와 협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선화주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등 불확실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이며 해운 시황 동향 및 전망, 선화주 상생 토론회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선화주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선순환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기술보증기금, 청년이사회 간 협약 체결

6월 15일(목) 공사는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양 기관 청년이사회 '공공기관 업무혁신 및 소통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청년 정책 우수사례를 함께 발굴하고, 조직문화 개선 및 업무 혁신 사례를 교류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조직문화 구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관련 정책, 조직 문화 개선사례, 업무 혁신사례, 청년이사회 운영 노하우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내재화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청년이사회 운영을 통해 주니어 직급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공사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연안여객선사 신용보증 사업설명회 성료

4월 13일(목)부터 6월 19일(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된 '연안여객선사 신용보증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연안여객선사를 대상으로 목표, 여수, 통영, 군산, 인천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20여 업체가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공사는 신용보증 지원 방향과 사례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업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로 수렴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의 지원 방향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CJ대한통운과 최대 6천억 원 규모 물류센터 추진 협약 체결

6월 19일(월) CJ대한통운과 '국가 공급망 인프라 제고 목적 해외 인프라 개발을 위한 북미 프로젝트 추진 협약(MoA)'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CJ대한통운이 구축하는 시카고 인터모달터미널 및 뉴욕항 배후 첨단 물류센터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정책 금융 기관과 민간기업 공동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하여 우리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입 공급망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양사의 자원과 역량, 노하우 등을 활용한 글로벌 물류 경쟁력 창출 방안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KOBC 청렴·윤리 활동 소식

2023 KOBC 청렴 슬로건 사내 공모



공사의 청렴의지를 함축하고 있는 참신한 슬로건 발굴을 위한 청렴 슬로건 사내 공모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31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사내 투표와 윤리경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청렴 워크숍 및 청렴 퀴즈 대회



공사 윤리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윤리경영 관련 내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반부패 청렴 퀴즈 대회와 청렴 젠가 활동 등 참여형 청렴 활동을 진행하여 재미와 더불어 직원들의 윤리경영의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2023년 신규입사자 및 승진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외부 청렴 전문가를 초빙해 헛갈리기 쉬운 법령과 행동강령을 사례 중심의 강연으로 풀어내어 교육 참석자의 강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임직원의 청렴의식 내재화를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청렴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3년 KOBC 청렴 주간



기업 윤리의 날(6/2)을 맞이하여 7일간 청렴주간으로 지정하여 사내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도모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윤리경영추진단을 중심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진행하고, 임직원 모두가 청렴레터를 작성하는 청렴다짐 캠페인을 시행하였습니다.

긴가민가 청탁금지법

금품 등의 수수 금지



Q.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선물이라면 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나 수수해도 되나요?

A. 직무 관련 대가성에 따라 결정!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은 허용하나,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으면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정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한 선물을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구매가로 결정됩니다!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구매가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KOBC 청렴 스크린



더 킹 | 한재림 | 2017년

출연 정우성, 조인성, 김아중 등

장르 범죄, 드라마

줄거리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품나게 살고 싶었던 태수는 우여곡절 끝에 권력의 설계자 한강식을 만나 핵심 라인을 타고 승승장구하게 된다. 정권이 교체되는 중요한 시기, 새로운 판을 짜며 기회를 노리던 이들 앞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는데... 대한민국이 속시원하게 뒤집힌다!

Point 부패의 위험성



스노든 | 올리버 스톤 | 2017년

출연 조셉 고든 레빗, 웨일린 우들리

장르 드라마

줄거리 CIA와 NSA(미 국가안보국)의 정보 분석원인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조셉 고든 레빗)은 정부가 테러 방지라는 명분으로 국경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는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 권력에 맞서기 위해 국가 기밀문서를 모아 홍콩으로 건너간 스노든은 가디언지 기자 클렌 그린월드(재커리 퀴토)와 이완 맥어스킬(톰 윌킨슨), 그리고 영화감독 로라 포이트라스(멜리사 레오)를 만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폭로를 준비하게 되는데...

Point 부패와 비리에 맞서 싸우는 내부고발자



더 포스트 | 스티븐 스피버그 | 2018년

출연 메릴 스트립, 톰 행크스

장르 드라마

줄거리 1971년, 뉴욕 타임즈의 '펜타곤 페이퍼' 특종 보도로 미 전역이 발칵 뒤집힌다. 트루먼, 아이젠 하워, 케네디, 존슨에 이르는 네 명의 대통령이 30년간 감춰온 베트남 전쟁의 비밀이 알려지자 정부는 관련 보도를 금지시키고, 경쟁지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장은 베트남 전쟁의 진실이 담긴 '펜타곤 페이퍼' 입수에 사활을 건다. 결국 4천 장에 달하는 정보기밀문서를 손에 쥔 '벤'(톰 행크스)은 미 정부가 개입하여 베트남 전쟁을 조작한 사건을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초의 여성 발행인 '캐서린'(메릴 스트립)은 회사와 자신, 모든 것을 걸고 세상을 바꿀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데... 1분 1초의 사활을 건 특종 경쟁 속 세상을 뒤흔든 위대한 보도가 시작된다!

Point 진실을 위한 용기



1급기밀 | 홍기선 | 2018년

출연 김상경, 김옥빈, 최무성 등

장르 범죄, 드라마

줄거리 국방부 군수본부 항공부품구매과 과장으로 부임한 박대익 중령에게 어느날, 공군 전투기 파일럿 강영우 대위가 찾아와 전투기 부품 공급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익이 부품구매 서류를 확인하던 중 유독 미국의 에어스타 부품만이 공급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은밀한 뒷조사 끝에 모종의 계약을 알게 되고 폭로를 결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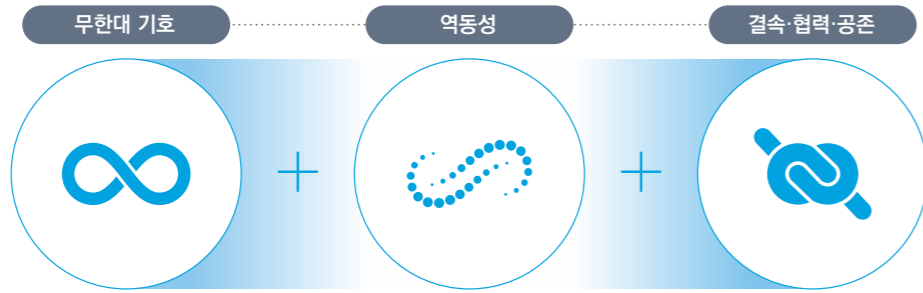
Point 양심의 소리에 따라 행동한 공익 신고자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새로운 CI를 소개합니다

● Process

무한대 기호를 시각화한 형태는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 해운산업의 역동성, 그 사이를 든든히 지탱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무궁무진한 미래를 의미합니다.



● Wordmark



● Detail

▶ 영문 o와 b가 연결된 형태는

해양항만물류기업과의 지속적인 결속과 협력, 공존을 나타내며, 안정과 신뢰, 청렴과 발전을 상징하는 블루컬러를 통해 해양금융의 리더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 앞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항만물류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고 해운산업의 희망찬 미래를 실현하는 해양금융의 리더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준수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직원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실천수칙



- 01 필수정보만 최소한, 추가 정보는 동의 필수
- 02 민감 정보 처리금지 -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
- 03 다른 용도의 사용이나 제3자 제공금지
- 04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05 안전성 확보 조치 필수
- 06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 07 정보 이용 후 반드시 파기
- 08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통보
- 09 CCTV 운영 시 안내판 설치

